#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이상훈*

1. 머리말
2. 마읍산의 입지 조건
3. 마읍산의 위치 비정
4. 마읍산과 대동강 수로
5. 맺음말

## 1. 머리말

삼국통일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660)와 고구려(668)가 멸망하고, 이후 나당전쟁(669~676)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이루어졌다.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정리되었다. 그런데 삼국통일기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방어와 관련하여

*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www.kci.go.kr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지명이 남아 있다.[1] 바로 마읍산(馬邑山)이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 해인 661년 당군은 다시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당군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읍산을 탈취하고 진영을 세운 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즉, 마읍산은 공격 입장에서 평양성을 포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곳이었고, 반대로 방어 입장에서는 평양성을 외곽에서 방어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읍산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유명미상지분(三國有名未詳地分)'이라고 하여, 이름은 있지만 상세히 알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평양성 서남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안정복(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이나 한치윤(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繹史)』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따라 평양성 근교의 서쪽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병도는 대동강 하류 방면으로 짐작된다고 하였고,[3] 손영종은 막연히 평양 남쪽으로 비정하였으며,[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역주 삼국사기』에도 평양 서쪽 근교라고만 되어 있다.[5] 정리하면 마읍산을 평양성 근교의 서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련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시도되지 않고

1) 전투에 있어 지형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전에서도 지형과 기상은 작전수행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METT+TC 즉 임무(Mission), 적(Enemy), 지형 및 기상(Terrain), 가용부대(Troops), 가용시간(Time available), 민간고려요소(Civil consideration) 등을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대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이나 기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2) 『삼국사기』 권37, 지리4, 고구려 · 백제.
3)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96, p.181.
4) 손영종,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231.
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p.570.

www.kci.go.kr

있는 것이다.

삼국통일기 고구려 평양성의 방어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부분들이 명확해졌다.[6]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마읍산의 위치와 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마읍산이 가지는 여러 입지 조건들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한다. 다음으로 마읍산이 평양성과 대동강 사이에서 군사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추정한다. 이를 통해 고구려 평양성 방어체계의 일면이 보다 분명해지리라 여겨진다.

## 2. 마읍산의 입지 조건

고구려 평양성 방어의 거점이었던 마읍산의 입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A-① 8월에 (소)정방이 고구려군을 패강(浿江)에서 깨뜨려 마읍산(馬邑山)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7]

A-② 가을 8월에 소정방이 우리 군사를 패강(浿江)에서 깨뜨려 마읍산(馬邑山)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8]

---

6)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田中俊明, 「성곽시설로 본 고구려의 방어체계-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고구려발해연구』 8, 1999.
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군사편제와 운용」『고구려발해연구』 27, 2007.
여호규, 「고구려의 성과 방어 체계」『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2007.
나동욱,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운용체계」『사학연구』 95, 2009.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선사와 고대』 35, 2011.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고고학』 12-3, 2013.
이성제, 「용강 황룡산성과 황해~대동강 연안로 -고구려 후기 왕도 방어체제의 일례-」『고구려발해연구』 41, 2011.

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八月, 定方破虜兵於浿江, 奪馬邑山, 遂圍平壤."

8)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20년,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浿江, 奪馬邑山, 遂圍平壤城."

www.kci.go.kr

660년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661년 당의 장수 소정방은 대동강(浿江)[9]으로 들어가 마읍산을 탈취한 후 평양을 포위하였다.[10] 사료 『신당서』(A-①)와 『삼국사기』(A-②)에서 보듯이 당군의 이동은 대동강→마읍산→평양 순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읍산은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위의 사료들에서 마읍산의 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A-③ 마읍산은 『일통지(一統志)』에 평양성 서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 소정방이 마읍산을 빼앗고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1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마읍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12]를 인용하여 마읍산이 평양성의 서남쪽에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마읍산의 위치를 평양의 서남쪽이라고 인식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읍산은 평양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남쪽에 위치한 산이라 할 수 있다.

661년 평양을 포위한 소정방은 660년에 백제의 수도 사비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소정방은 금강 하구로 진입해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성공한 작전 경험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661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대한 공격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정방은 대동강

9) 패수의 위치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삼국통일기에 들어서면 대동강으로 고정되어 인식된다.
10) 당의 백제 원정과 평양 직공책에 관한 전략 변화는 김영하, 「고구려 내분의 국제적 배경 -당의 단계적 전략변화와 관련하여-」『한국사연구』 110, 2000 참조.
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고적, "馬邑山, 一統志, 在平壤城西南, 唐蘇定方奪馬邑山, 遂圍平壤卽此."
12) 명나라의 지리지로 전체 9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원일통지(大元一統志)』를 참조하여 1461년에 완성되었다.

www.kci.go.kr

하구로 진입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성을 포위하였던 것이다.

B-① (소)정방이 동쪽 연안으로 나와 산에 올라 진(陣)을 치고 그들[백제군]과 크게 싸웠다. 돛을 펴고 바다를 뒤덮으며 서로 이어서 이르렀다. 적의 군사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수천 명이었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달아나 흩어졌다. 조수(潮水)를 만나 올라가는데 배의 꼬리가 연이어 강으로 들어갔다.[13]

B-② (소)정방이 왼쪽 연안으로 나와 산에 올라 진(陣)을 치자, 그들과 싸워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 당군이 조수(潮水)를 타고 배의 꼬리를 물며 북을 치며 나아갔다. 정방이 보기병(步騎兵)을 거느리고 곧장 나아가 도성[사비]의 일사(一舍)되는 곳에 머물렀다.[14]

참고로 660년 당시 소정방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금강 하구로 진입했다.[15]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는 것이 『구당서』(B-①)와 『삼국사기』(B-②)의 기록이다. 금강 하구에서 소정방은 동쪽 연안 혹은 왼쪽 연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과 왼쪽은 동일한 방향을 의미하고 있다.[16] 당시 소정방이 상륙한 곳은 대체로 군산 오성산(五聖山)[17]으로 비정되고 있다.[18]

소정방은 상륙 후 오성산을 차지하고 그곳에 진영, 즉 교두보[陣]를

13) 『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 "定方升東岸, 乘山而陣, 與之大戰. 揚帆蓋海, 相續而至. 賊師敗績, 死者數千人, 自餘奔散. 遇潮且上, 連舳入江."

14)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0년, "定方出左涯, 垂山而陣,與之戰, 百濟軍大敗. 王師乘潮, 軸含尾, 鼓而進. 定方將步騎, 直趨都城一舍止."

15) 당시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에 관해서는 이상훈,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 멸망」 『역사와 실학』 59, 2016 참조.

16) 중국에서는 조선을 바다 동쪽에 있다고 하여 '海東'이나 '海左'로 불렀으며, 좌청룡(동쪽) · 우백호(서쪽)라고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김영관,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로와 금강」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2007, p.244).

17) 오성산은 해발 277m에 불과하지만 군산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금강 입구와 멀리 고군산 열도까지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된다. 따라서 오성산은 금강 입구를 왕래하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일찍부터 활용되었을 것이다(김종수, 「660년 백강 전투와 오성산 전설」 『전북사학』 33, 2008, pp.23~24).

18) 당군은 상대적으로 백제군의 방어가 약하고 사비로 진군하기가 유리한 금강 남안의 군산방면으로 상륙하였는데, 금강 입구로 진입하여 처음으로 마주치는 동쪽방향의 산지인 오성산 일대로 상륙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영관, 앞의 논문, p.249).

www.kci.go.kr

마련하여 백제군과 전투를 벌였다. 백제군을 물리친 당군은 다시 금강 수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소정방이 보기병을 거느리고 북상한 것으로 묘사된 점으로 보아(B-②), 당의 육군은 금강 남안을 따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로만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수로 양안(兩岸)으로부터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19] 즉 당 수군과 육군이 금강 수로와 금강 연안을 따라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북상하였던 것이다.

백제의 수도 사비는 금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방은 금강 남안에 육군을 상륙시켜 교두보를 마련하고 북상하였다. 반대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방은 대동강 북안에 육군을 상륙시켜 교두보를 마련하고 북상할 필요가 있었다. 정리하면 마읍산은 대동강 수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대동강 북안에 위치한 산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① (소)정방이 요동도행군대총관이 되어 평양도(平壤道)로 나아갔다. 패강에서 고(구)려 무리를 깨뜨리고 마읍산을 빼앗아 영(營)을 세웠으며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20]

C-② (소정방이) 고구려 무리를 패강에서 깨뜨려 마읍산을 빼앗고 영(營)을 세웠으며 마침내 평양성을 포위하였다.[21]

『신당서』(C-①)와 『삼국유사』(C-②)의 기록을 통해 소정방이 평양을 공격할 때에도 먼저 마읍산에 진영[營], 즉 교두보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22] 이러한 교두보에서는 전방으로 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

19) 앙투안 앙리 조미니(이내주 역), 『전쟁술』, 책세상, 1999, p.175 참조.
20) 『신당서』 권111, 소정방전, "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俄徙平壤道. 破高麗之衆於浿江, 奪馬邑山爲營, 遂圍平壤."
21)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破高麗之衆於浿江, 奪馬邑山爲營, 遂圍平壤城"
22) 김병곤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을 서술하면서 당군의 마읍산 점령은 동북방의 평양성을 공격할 교두보 확보로 이해하고 있다(김병곤, 「661~662년 당 수군의 평양 직공책의 전략과 한계」 『한국사학보』 50, 2013, p.54).

www.kci.go.kr

고, 후방으로 오는 아군의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두보로서 마읍산은 주변 일대를 감제(瞰制)하고 방어하기 좋은 고지(高地)이자, 대동강 수로와 연결되어 군수물자를 집적하기 수월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교두보 운용을 위해서는 군수물자와 병력을 실은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한 포구가 필요하다. 중소형 선박은 상류로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대형 선박에서 하역한 군수물자나 하선한 병력들은 육로를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자연히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된 마읍산의 입지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② 평양성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③ 대동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다.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⑤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다.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다.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 3. 마읍산의 위치 비정

군사 요충지는 지형과 교통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661년 당나라 수군과 마찬가지로 612년 수나라 수군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다. 즉, 수와 당 모두 대동강을 이용해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했던 것이다.

www.kci.go.kr

D. 수나라의 좌익위대장군 내호아(來護兒)는 강회(江淮)의 수군을 거느리고 선박의 행렬을 수백리로 하여 바다로 먼저 나아갔다. 패수(浿水)로 들어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군사와 서로 만나니 진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내)호아는 승세를 타고 그 성[평양]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부총관 주법상은 이를 말리며 여러 군사들의 도착을 기다려 함께 진격하기를 청하였다. 호아는 듣지 않고 정갑(精甲) 수만 명을 뽑아 성 아래로 곧장 나아갔다. 우리 장수는 나곽(羅郭) 안의 빈 절 속에 군사를 숨겨 두고, 군사를 내어 호아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였다. 호아는 그 뒤를 쫓아 성으로 들어갔다. 군사를 놓아 사로잡고 약탈하느라 대오를 짓지 않았다. 복병이 나와서 치니 호아는 크게 패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병사들이 살아 돌아온 자가 수천에 불과했다. 우리 군사는 이를 쫓아 선소(船所)에 이르렀는데, 주법상이 진(陳)을 정돈하여 대기하고 있어 우리 군사는 물러났다.[23]

D 사료는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의 장수 내호아는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 하구로 진입하여 수로를 따라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였고 승리하였다. 이에 승세를 타고 곧장 평양으로 진군했다. 그러나 평양성 나곽(외성)[24]에서 고구려군의 매복에 걸려 패배하고 말았다. 이러한 수의 공격과정에서 마읍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첫 전투장소이다. 내호아군이 고구려군과 접전을 벌인 곳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고구려 입장에서 본다면, 고구려군이 수나라 군대를 막아선 곳은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왜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을 전투 장소로 삼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평양에서 대동강을 따라 하류방향으로 60리 내려간 지점으로서, 대동강 수로를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지형

23)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23년.

24) 고구려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평양성의 내성을 크게 감싸면서 대동강 강안을 따라 외성을 축조하였는데, 외성이 바로 나곽이다(田中俊明, 「성곽시설로 본 고구려의 방어체계-왕도 및 대중국 방어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8, 1999, p.228).

www.kci.go.kr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25]

먼저 평양에서 대동강 수로를 따라 60리 떨어진 지점을 확인해 보자. 『강서군지(江西郡誌)』의 보산진(保山鎭) 항목을 보면, 보산진은 보림면 서학산(捿鶴山, 272m)[26] 동록 관포리(觀浦里)에 있으며, 대동강이 '평양으로부터 60리' 평야를 지나 이곳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또 대동강이 강 건너 중화의 정이산(鼎耳山, 194m)[27]과 서학산의 좁은 곳을 지나다 보니 수심이 깊어 증기선(蒸氣船)을 탄토(呑吐)할 만한 항구를 이루었으며, 실로 평양의 인후(咽喉)와 같은 곳이라고 되어있다.[28] 1892년(고종 29)에 평안감사 민병석이 올린 장계에도 "도내(道內)의 보산진은 바로 바다 어귀의 중요한 요해지로서 윤선(輪船)이 정박하는 곳입니다"[29]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

서학산 동록의 보산진이 위치한 관포리는 현재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이다. 『강서군지』의 서술처럼 서학산 아래 보산 일대는 깊은 수심으로 인해 항구가 발달하기 좋은 조건임을 짐작할 수 있다.[30] 그렇다면

---

25) 고구려군은 나곽 전투 이후 내호아군을 추격했으므로 당시 육군과 수군이 모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서 기록에 고구려군이 추격을 멈춘 이유가 이곳에 수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앞서 수나라 군대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을 물리친 이후, 이곳에 방어진지[陣]를 마련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6) 『강서군지(江西郡誌)』에 따르면, 서학산(棲鶴山)은 일명 구룡산(九龍山)이라고 하며, 보림면 서학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산세가 웅후(雄侯)하고 대동강이 바로 산 밑을 허리띠처럼 흘러 내려가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강서(江西)의 금강(金剛)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강서군지편수회, 『강서군지』, 대한공론사, 1969, p.7).

27) 정인산(定仁山) 혹은 오랑캐를 막아낸 산이라는 의미에서 정이산(定夷山)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28) 강서군지편수회, 앞의 책, p.99.

29) 『國譯 備邊司謄錄』 273책, 고종 29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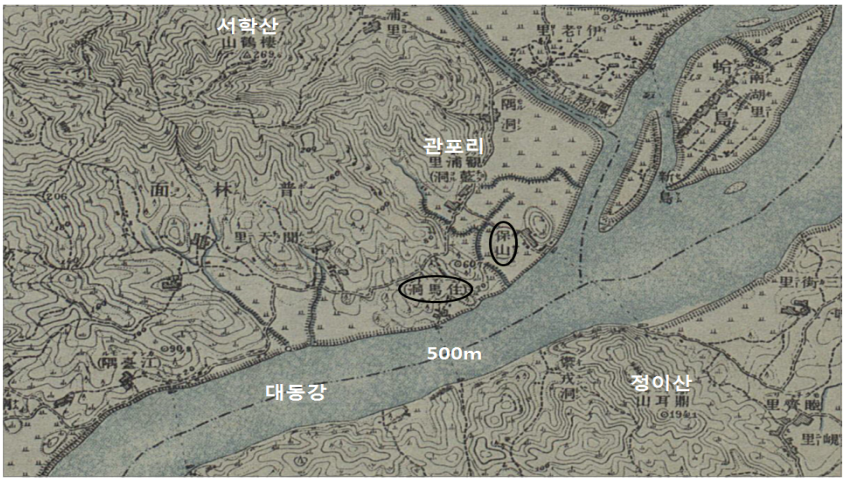
30)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강서군(江西郡) 항목에 따르면, 보산항(保山港)은 광해군 때 대명해상교통로의 통빙참소(通聘站所)인 보살원(菩薩院)이 있던 장소이다. 광해군 때 만주에 여진족이 흥기해 육상교통로가 차단되었을 때 이곳에 외빈관(外賓館)이 있었다고 한다. 보산진(保山鎭)에는 조선시대 중엽까지만 해도 성 안에 수백 명의 수비병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갑오경장 이후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무연탄의 반출항구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www.kci.go.kr

서학산과 보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1> 조선후기 서학산 일대의 지형[31]




<그림 2> 일제시기 서학산 일대의 지형[32]

31)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32) 朝鮮總督府, 『1:5만 지형도』, 1918.

www.kci.go.kr

조선후기 지도(그림 1)와 일제시기 지도(그림 2)를 통해 서학산 동록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안에 서학산, 남안에 정이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보산 일대는 장기간의 퇴적과 개간으로 육화(陸化)되었지만,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학산과 정이산의 산록으로 인해 이 구간의 강폭은 상당히 좁다. 이러한 지형 덕분에 서학산, 정이산, 보산이 서로 호응하면서 대동강 수로의 '인후(咽喉)'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제시기의 보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 E. 대동강의 우안(右岸) 평양에서 서남으로 약 6리 거리인 강서군(江西郡) 초리면(草里面) 보산(保山) 위에 있다. 보산은 높이 200척 정도의 고립된 바위산으로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 그 정상에 석축 성벽으로 산을 두르고 있고 정면으로 낮은 곳에 그 성문을 만들었다. 성 안은 협소하여 다수의 병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안(對岸)에 우뚝 솟아있는 있는 중화군(中和郡) 해압면(海鴨面) 정인산(定仁山)과 호응하여 대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요해처이다. 이곳에서 한번 수비에 실패하면 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시 방어할 지점이 없다. 성 안에는 옛 기와가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고려 이전으로 소급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형상 혹 고구려시대에 작은 성채를 세웠을 지도 모른다. 성 안에서는 왕왕 낙랑시대의 벽돌이 발견되는데, 혹 당시 분묘의 유물인지 아니면 낙랑군 방어의 한 지점이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지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33]

일제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1919년 평안남도 강서군 지역을 조사하면서 보산에 관한 기록도 자세히 남겨두었다. 보산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중화군 정이산(정인산)

33)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 1919(민족문화사, 1980), pp.756~759. 이 기록은 앞서 이성제가 황해-대동강 연안로의 고구려 방어체제를 검토하면서 주목한 바 있다(이성제, 앞의 논문, p.169). 다만 이를 마읍산과 연관지어 이해하지는 않았다.

www.kci.go.kr

과 호응하여 대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 평하였으며, 이곳에서 수비를 하지 못하면 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시 방어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보산을 중심으로 대동강 북안의 서학산과 남안의 정이산을 제대로 틀어막으면, 대동강 수로를 통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평양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즉 서학산-보산-정이산 일대가 평양 외곽방어에 있어 핵심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보산의 위치를 평양에서 서남으로 '약 6리 거리'라고 서술한 것이다. 6리라고 하면 약 2km 남짓이다. 평양에서 보산이 위치한 관포리까지 직선거리로만 대략 20여 km가 된다. 따라서 잘못 서술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척관법(尺貫法)에 따라 일본의 1리는 약 3.9km에 해당한다.[34] 조선의 1리가 약 400m이므로 10배에 달한다. 즉, 일본의 6리는 조선의 60리가 된다. 일본의 6리 거리는 약 23.4km가 되므로 평양에서 관포리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

조선후기 지도나 일제시기 지도에서 확인되는 보산은 분명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평양에서 20여 km 떨어져 있고,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정도되는 지점이다.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는 바로 612년 수나라가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그 지점과 동일하다. 수나라 수군의 침입이 있었을 때, 고구려군은 서학산-보산-정이산 일대에서 방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34)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도량형제에 관해서는 이종봉, 「일제 강점기 도량형제의 운용 양상」『한국민족문화』 57, 2015 참조.

www.kci.go.kr



<사진 1> 정이산쪽에서 바라본 보산[35]

『대동지지(大東地志)』의 평안도 평양 진보(鎭堡) 항목을 보면, 보산보에 대한 서술이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 F-① 보산보(保山堡). 서남쪽으로 80리, 이로도(伊老島) 가운데에 있다. 서쪽으로 강서(江西)와 동쪽으로 중화(中和)와의 사이에 강을 끼고 있는데, 방어의 요새지였다. ○ 석성(石城)은 둘레가 9백 10보이다. ○ 별장(別將) 1인이 있다. ○ 영양왕 23년(612)에 수나라 장군 호아(護兒)가 배를 끌고 와서 패수(浿水)로부터 쳐들어왔다.[36]

보산보(保山堡)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80리 거리에 있으며, 강서와 중화 사이에 강을 끼고 있는 방어의 요새지라고 하였다. 보산에 설치된 보루를 보산보라고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612년 수나라 내호아의 수군이 패수로부터 쳐들어왔다고 하여,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612년 수나라 수군과 661년 당나라 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구려군

35) 朝鮮總督府, 『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 1919(민족문화사, 1980), p.757.
36) 『대동지지』 권21, 평안도 평양, 진보.

www.kci.go.kr

과 전투를 벌인 곳은 지형상 동일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나라 장수 내호아의 열전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확인된다.

> F-②요동의 역(役)에서 (내)호아는 누선(樓船)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아가 패수로 들어갔다.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고(구)려군과 서로 만나자, 진격하여 크게 깨뜨렸다.[37]

당시 내호아가 거느린 수군 선박은 누선(樓船)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 수나라의 선박은 여러 종류가 있었고,[38] 그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선박을 상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다.[39] 다만 위의 서술을 통해 누선이 수나라의 주력 병선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누선은 선체가 높고 크며, 무기와 방호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누선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노(弩)와 모(矛)를 사용할 수 있는 창(窓)이 있었고, 외부에는 가죽을 씌워 화공에 대비하였다. 또 투석기를 설치하여 성루(城壘)와 같았다고 한다.[40] 하지만 선체가 높고 무거웠기 때문에 안정성과 기동성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누선의 경우 대형 전함으로서 운항이나 정박을 위해서는 깊은 수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대동강 하류의 경우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

37) 『수서』 권64, 내호아전, "遼東之役, 護兒率樓船, 指滄海, 入自浿水, 去平壤六十里, 與高麗相遇. 進擊, 大破之."

38) 당나라 수군은 樓船(대형선), 艨衝(전투선), 走舸(구급선), 遊艇(정찰선), 海鵲(특수선) 등 6종류의 병선을 보유했는데(王冠倬 編, 『中國古船圖譜』, 三聯書店, 2000, p.95), 수나라 수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9) 612년 수 양제의 출전 조서에는 "又滄海道軍舟艫千里, 高帆電逝, 巨艦雲飛, 橫斷浿水, 逕造平壤"라고 되어 있는데(『수서』 권4, 양제 하, 대업 8년, 정월), 수군의 선박이 거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당전쟁 당시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설인귀서(薛仁貴書)」를 보면,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 巡於北岸"이라 하여 당나라 수군도 누선이라 묘사되어 있다.

40) 張鐵牛·高曉星, 『中國古代海軍史』, 解放軍出版社, 2006, p.28.

www.kci.go.kr

강하게 받는 곳이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41] 따라서 수나라의 대형 전함은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곳에 정박하여 병력과 군수물자를 하역하고, 중소형 전함은 평양성 바로 앞까지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675년 9월에 당의 장수 설인귀는 경기 파주의 천성(泉城)을 공격하였다. 천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신라의 장수 문훈이 승리하면서 병선 40척과 전마(戰馬) 1,000필을 노획한 적이 있다.[42] 당시 당군이 천성에 상륙하면서 상당수의 전마를 하역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60년에 소정방도 금강 남안의 오성산 일대에 상륙한 후, 보기병을 거느리고 금강을 따라 북상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군은 먼저 교두보를 마련한 상태에서 육군을 상륙시켜 강안을 따라 육로로 이동시키고, 수군은 강을 따라 수로로 이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두보로 마련된 곳에는 상당한 수의 전마가 하역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전마(戰馬) 뿐만 아니라, 수송을 위한 태마(駄馬)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43]

---

41) 대동강은 약 450km에 달하는 하천으로 평안남도 영원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대동강은 평양 동쪽의 南江과 합류점까지 서해의 밀물 영향을 받는데, 평양 부근에서 1~2m, 하구 부근에서는 4~5m까지 수위가 올라간다(이형석, 「천하 제일 강산 평양 젖줄 대동강(Ⅱ)」『북한』234, 1991, pp.99~101).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당시 당군의 천성 공격 의도는 대규모 접전을 앞둔 상황에서 보급함대를 상륙시켰다는 견해(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편찬연구소, 1999, p.144 ;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pp.85~92)와 그 자체로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했다는 견해(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pp.215~216)로 나뉘어져 있다.

43) 한편 마읍산(馬邑山)이라는 지명 자체를 놓고 본다면 '말(馬)'과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일대에 예전 고구려의 목장이 위치하고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 보이는 '가마동(佳馬洞)'이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마동은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다가 이후에는 사라진 동이름이다.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에 따르면, 1912년(大正元年) 朝鮮總督府로 제출된 '國有林野貸付許可の件'이라는 문서 속에 "平安南道 江西郡 普院面 佳馬洞 棲鶴山 國有森林"이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로서 전근대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말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www.kci.go.kr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읍산의 입지 조건은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성 사이에 위치하고, ② 평양성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대동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고,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⑤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고,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며,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특정해 보자.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포구 역할을 겸하면서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곳은 바로 보산이 위치한 서학산 일대라 할 수 있다(그림 1 · 2 참조). 다시 말해 서학산 일대를 고대에는 마읍산이라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 4. 마읍산과 대동강 수로

평양 서남쪽 60리에 위치한 서학산 일대가 대동강 수로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졌을까? 다시 말해 서학산 일대가 왜 고구려 평양성 방어의 거점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안에 서학산, 남안에 정이산이 위치하고 있다.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 대동강의 강폭은 가장 좁은 곳이 약 500m이다. 현재와 같이 퇴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지형상 600m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대동강 하구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최소 1km 이상 유지되던 강폭이 이곳에서 크게 좁아지고 있다. 대동강 북안의 서학산과 남안의 정이산 사이로 대동강이 흘러감에 따라 강폭이 가장 좁아지는 것이다.[44] 쉽게 말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44) 과거의 수로와 지형이 현재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에 이르는 대동강 수로 가운데 이 지점이 가장 좁은 구간이 된다.

www.kci.go.kr




<그림 3> 서학산 일대의 지형[45]

서학산과 정이산 사이에 보산이 위치하고 있다. 보산은 서학산 자락에 연접해 있지만, 서학산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쪽 방향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즉, 보산에서는 대동강 하구로부터 거슬러 들어오는 적 수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관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적 수군의 동향을 관측하고 신속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산 앞쪽의 서학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보산은 수군을 숨기기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며, 서학산과 정이산은 육군이 배치되어 방어하기 유리한 지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구려는 서학산과 정이산 그리고 보산 일대에 수륙군을 배치하여 방어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강노(强弩)의 사거리가 300~1,000보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46] 서학산과 정이산 자락에 고구려가 방어병력을 배치할 경우, 수로를 이용하는 적이 아무런 피해없이 이 구간을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

45) 그림 출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2017. 2. 24).
46) 이정빈, 「6~7세기 고구려의 쇠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군사』 77, 2010, p.70.

www.kci.go.kr

능하다. 적의 입장에서는 대동강 양안으로부터 협공을 받으며 이 좁은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기보다는 상륙하여 양쪽 혹은 최소한 한쪽이라도 장악해야만 한다. 즉, 평양으로 공격하는 적과 방어하는 고구려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결정적 지점이 되는 것이다.

서학산 일대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전반적인 방어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성들은 주로 군사방어를 위해 축조되었기 때문에, 주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47] 그리고 고구려의 지방성에는 중앙군과는 별도로 성주의 지휘 아래 자수(自守)하는 지방군이 존재하고 있었다.[48] 평양도읍기 고구려는 요하와 요동반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 1차 국경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향하는 요동지역의 모든 교통로에도 성을 축조하였다. 다만 서북쪽 방어에 신경을 쓰다보니 다른 지역은 성의 밀집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49]

고구려는 수도 평양으로 접근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중대형의 방어용 산성을 평양 외곽에 배치하였다. 평양 북쪽에는 청룡산성(둘레 5.3km), 북동쪽에는 흘골산성(둘레 1.3km), 서쪽에는 황룡산성(둘레 6.6km), 남쪽에는 황주성(둘레 4.0km)을 배치하였는데, 모두 포곡식 산성으로 수도 외곽의 실질적인 최종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50] 이 가운데 적군이 대동강 수로를 따라 접근하게 되면, 서쪽의 황룡산성과 남쪽의 황주성이 방어를 담당하게 된다.

황룡산성은 남포시 용강군의 오석산(556m)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석산은 남포 일대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이다. 황룡산성은 둘레가 6.6km에 달하는 대형 산성으로 서해와 평양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47) 여호규, 『고구려 성 Ⅰ』, 국방군사연구소, 1998, pp.16~17 ; 나동욱,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운용체계」『사학연구』95, 2009, p.24.
48) 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군사편제와 운용」『고구려발해연구』27, 2007, p.163.
49) 양시은,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고고학』12-3, 2013, p.142.
50) 양시은, 앞의 논문, pp.129~130.

www.kci.go.kr

에 자리잡고 있다.[51] 황룡산성이 위치한 용강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유사시 적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넓은 수용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52] 또한 황룡산성 주변에는 어을동토성지, 우산성, 동진성, 늑명산성, 보산성 등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데, 황룡산성은 이들을 아우르는 거점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53]

황주성은 황해도 황주군의 덕월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득월산성이라고도 한다.[54] 황주성은 둘레가 4km에 달하며 북쪽의 평양과 남쪽의 봉산을 잇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한강 이북에서 평양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주로 자비령로와 방원령로가 이용되었다. 자비령로는 개성–서흥–황주–평양으로 이어지고, 방원령로는 연천–신계–수안–평양으로 이어진다.[55] 고구려의 남진이나 백제의 북진은 이 두 교통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56] 자비령로를 경유할 경우 반드시 황주를 거쳐가야만 한다. 특히 평양–황주–봉산으로 이어지는 축선은 고구려의 남부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군수물자와 병력이 이동하는 중요한 군사적 교통로였다.[57] 따라서 황주성 일대에는 적지 않은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8]

---

51) 이성제, 앞의 논문, p.162.
52) 이성제, 앞의 논문, pp.169~170.
53) 황룡산성과 주변의 여러 성곽들은 서로 연결되어 황해~대동강 연안로를 통제하고 적의 침입에 대처하는 유기적 방어체제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성제, 앞의 논문, pp.167~173).
54)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선사와 고대』35, 2011, p.201.
55) 서영일, 「한성시대의 백제 북방교통로」『문화사학』 21, 2004, p.244.
56)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사학지』 38, 2006 및 문안식, 「백제의 평양성 공격로와 마식령산맥 관방체계 구축」『한국고대사탐구』 22, 2016 참조.
57) 신광철, 앞의 논문, p.215.
58) 6세기 무렵 고구려가 임진강 이남의 남부전선에 대략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상시 주둔시켰다는 견해를 참조하면, 임진강 이북의 황해도 일대는 수도 평양과 보다 가까우므로 임진강 이남보다 더 많은 병력이 주둔·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신광철, 앞의 논문, p.212 참조).

www.kci.go.kr




<그림 4> 대동강 수로의 방어 체계[59]

적이 서해에서 대동강 수로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평양 서쪽의 황룡산성과 남쪽의 황주성이 방어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황룡산성에서 대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8km, 황주성에서는 직선거리로 약 12km가 떨어져 있다. 적이 상륙하여 황룡산성과 황주성을 공격하지 않고 대동강 수로로 그대로 진입할 경우,[60] 새로운 방어거점이 필요하다. 실제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 두 성을 공격하지 않고 대동강 수로를 통해 평양으로 접근하였다.

고구려는 대동강 수로상에서 적을 방어하기 용이한 지형에 방어거점

59) 그림 출처는 구글어스(Google Earth)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이다(2017. 2. 24).

60) 대동강 하구로 들어오는 선단은 평안남도 온천군 금사동 서남지역의 대당두산(大堂頭山)의 봉수대를 지나가야만 한다(이성제, 앞의 논문, p.170). 따라서 대당두산의 봉수를 통해 적의 침입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www.kci.go.kr

을 다시 선정해 두어야만 했다.[61] 이러한 지형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서학산 · 정이산 일대라고 할 수 있다.[62] 강폭이 좁아 적을 공격하기 용이하고 서학산과 정이산이 있어 방어병력의 은폐 · 엄폐도 수월하다. 또한 황룡산성과 황주성 그리고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 각각 이동하여 집결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63]

661년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마읍산을 점령하고 난 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평양성 함락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점차 식량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군은 신라에 군량 지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김유신을 파견하였다.[64] 662년 1월 김유신의 군량수송은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임진강을 건너 북상하였다. 북상한 김유신은 대동강 연안의 유포리(柳浦里) 일대로 이동하여 주둔한 후 당군에게 군량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5] 신라군이 주둔했던 유포리는 정이산 바로 남쪽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러한 점도 당시 당군이 서학산과 정이산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

신라로부터 군량 지원을 받은 당군은 대동강 수로를 통해 철수하였

61) 보산에는 고구려 이전시기부터 황해-대동강 연안로의 마지막 강안 방어시설이 있었으며, 고구려는 그것을 연용하여 석축의 성벽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성제, 앞의 논문, p.172).

62) 조선후기에 제작된 『朝鮮地圖(奎16030)』, 『八道郡縣地圖(古4709-111)』, 『靑邱圖(古4709-21)』 등을 보면, 保山에 倉이 있고 대동강 건너편 중화군 정이산 인근에 海倉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안도 중화군 고적조에 "古唐岳(在郡北十里 今稱唐村里)"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 언급된 倉은 조선시대와 관련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倉이 수륙교통의 요지에 설치된다는 점과 唐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일대가 고대부터 주요한 길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3) 『北史』 권76, 내호아열전의 내용을 보면(高麗主高元掃境內兵以拒之, 列陣數十里) 고구려가 여러 곳의 병력을 한 곳으로 집결시켰던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4)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2년 정월.

65) 당시 신라군은 '양오(楊隩)'라는 곳에 주둔했는데, 버드나무가 많고 물길이 굽어있는 대동강 연안으로 볼 수 있다. 양오 지역은 현재 평안남도 중화군 해압면의 유포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p.114).

www.kci.go.kr

고, 신라군 주력부대는 육로를 통해 남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군의 일부가 대동강 수로를 통해 귀국하였다.[66] 이는 평양 이서(以西)의 대동강 수로가 당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앞서 소정방이 평양을 포위하기 이전에 마읍산(서학산)을 점령하면서 이 일대의 고구려 통제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나당전쟁(670~676) 시기에는 '마읍산(馬邑山)' 대신 '마읍성(馬邑城)[67]'이라는 지명이 나타난다.[68] 672년 당군은 육로를 통해 압록강과 청천강을 건너 평양으로 남하하였다. 평양 일대에 진영을 구축한 이후,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 공략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한시성과 마읍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까지 비정되지 못했다. 다만 한시성과 마읍성은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동강 북안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되어 왔다.[69] 당군은 육로를 통해 남하했기 때문에 병선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들이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박이 필요했으며, 향후 장기전을 대비해 대동강 수로를 통한 보급로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당군은 대동강 수로의 결정적 지점이 되는 마읍성(서학산) 일대를 먼저 장악한 후 대동강을 도하하여 남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읍산과 마읍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볼 경우, 마읍성은 서학산 일대에 위치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668년 고구려 멸망 당시 나당연합군은 대동강 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육로를 통해 평양성으로 집결했

66) 양도가 이끄는 800명의 신라군은 김유신의 본대와 달리 바다를 통해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삼국사기』 권42, 김유신열전(중)), 이들은 대동강 수로를 따라 바다로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67) 『弘贊法華傳』 卷10, 書寫8(『大正新脩大藏經』 第51卷) 郎將吳氏조에도 마읍성과 관련된 기사가 확인되는데(郎將吳氏, 忘名, 東征高麗, 破馬邑城, 焚燒屋宇, 延及寺舍), 마읍성에 적지 않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秋七月, 唐將高保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八月, 攻韓始城馬邑城, 克之."

69) 당시 한시성과 마읍성은 당군에게 적대적인 고구려 부흥세력(혹은 신라)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앞의 책, p.40).

www.kci.go.kr

다. 아마 661년 대동강 수로를 통한 당군의 공격 이후 서학산 일대와 대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방어가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동강 수로의 방어 강화과정에서 서학산 일대에 성곽이나 보루 등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사료 E 참조). 이를 두고 신라나 당이 마읍성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 5. 맺음말

수나라와 당나라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육로뿐만 아니라 수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612년 수의 내호아와 661년 당의 소정방이 수군을 거느리고 대동강 하구로 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내호아는 평양성에서 60리 떨어진 지점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후 평양성으로 나아갔다. 소정방은 마읍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평양성으로 나아갔다. 내호아와 소정방이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장소는 동일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호아나 소정방이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장소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료를 통해 마읍산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① 대동강 하구에서 평양성 사이에 위치하고 ② 평양성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대동강 수로와 연결된 곳이고 ④ 대동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⑤ 교두보로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고 ⑥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곳이며, ⑦ 수륙 교통의 결절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동강 북안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륙 교통의 결절지가 되는 서학산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서학산과 정이산

www.kci.go.kr

자락으로 인해 대동강 수로가 500m 내외로 좁아지기 때문에 수로 교통상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고구려가 대동강 북안과 남안에 방어 병력을 배치할 경우 적군이 수로를 손쉽게 통과하기가 어렵다. 또한 수도인 평양성, 서쪽 거점성인 황룡산성, 남쪽 거점성인 황주성 사이에 위치해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기 용이한 위치이기도 하다. 수와 당 모두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마읍산(서학산)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점을 통해 볼 때, 마읍산은 대동강 수로 방어상 핵심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투고일: 2017. 6. 29, 심사수정일: 2017. 8. 7,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고구려, 마읍산, 대동강, 수로, 평양

www.kci.go.kr

<Abstract>

# The Location and position of Mt. Maeup the military point of view during the period of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Yi, Sang-Hun

The Chinese Dynasties of Su(隋) and Tang(唐) had invaded Goguryo(高句麗) with the large scale of forces. The dynasties of Su(隋) and Tang(唐) used waterway of the Daedong river(大同江) as a maneuver route. Naehoa(來護兒) of Su dynasty and Sojeongbang(蘇定方) of Tang dynasty led the navy and came into the Daedong river.

Naehoa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n the area where was located 60ri(里) away from the Pyongyang(平壤). Sojeongbang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n the Maeupsan(馬邑山). The place, where Naehoa and Sojeongbang fought against Goguryo army, is going to be same. But its location isn't clear.

A research result as the Maeupsan has gone out of the location of the Seohaksan(捿鶴山). This Location is placed in the smallest waterway in the Daedonggang. Su dynasty and Tang dynasty battled with Goguryo army here. The Maeupsan is a important place in the side of Goguryo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Keywords : Goguryo, Maeupsan, Daedonggang, Waterway, Pyongyang

www.kci.go.kr

www.kci.go.kr